

그리스도교가 잘못된 날(?)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날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받은 날일 거라고 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럴런지도 모른다. 3,000명이 한번에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날조된 신도들이 많았겠느냐는 말이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한 그리스도교의 국가종교화는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변질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다. 그것은 질에서 양으로의 전환이다. 사람들 중에는 그날을 그리스도교의 승리의 날로 말하지만 실은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에 병합된 비운의 날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교는 갑작스럽게 몸집이 커지는 반면에 머리와 팔다리는 위축됐다. 그때에 권력과 종교는 야합되어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백인들의 도구로 전락될 씨가 뿌려졌다. 그때에 미래적 하늘나라는 지상에서 이동됐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로 대치됐다. 그때부터 아래서 위로 향하던 전파의 길이 위에서 아래로 강요하는 종교가 됐다.

얼마 전에 어느 군단(軍團)에서 동시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일부 그리스도교 주간지들이 기적이냐 일어난 듯이 대서특필했었다. 왜 내게는 그 기적이 소름을 끼치게 할까? 어떻게 군인 세계에서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수천 명을 한 곳에 모아

서 무더기로 세례를 주어야 했는가? 정말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 한 성실한 행사인가 아니면 하나의 과시인가?

저들이 모두 참 진실한 결단을 한 크리스천이면 오죽 좋으랴, 그러나 세례를 주고받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대중적인 종교인지 모르나 신앙의 결단은 어디까지나 단독적(單獨的)이다. 참 진리는 조용히 누룩처럼 퍼진다. 그리스도교는 대중운동은 아니다. 아무리 공동체이지만 각 사람을 하느님 앞에 엄숙히 세우는 일이다.

(1972. 1.)